


3(2)
-
191

회의문자 ①



浮

뜰 부

浮자는 ‘(물에)뜨다’나 ‘떠다니다’, ‘가볍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浮자는 水(물 수)자와 孚(미쁠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孚자는 子(아들 자)자에 爪(손톱 조)자가 결합한 것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린  모습을 그린 것이다. 浮자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린 모습의 孚자를 응용해 물에 빠진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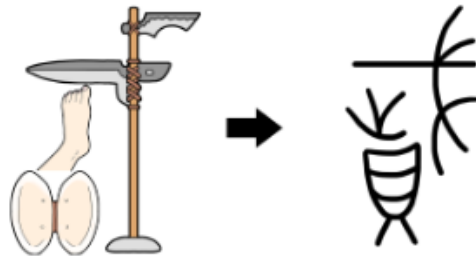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92

회의문자 ①



賦

부세 부:

賦자는 ‘부세’나 ‘매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賦자는 貝(조개 패)자와 武(굳셀 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武자는 창 아래에 발을 그린 것으로 ‘굳세다’나 ‘무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賦자는 이렇게 ‘무인’이라는 뜻을 가진 武자에 貝자가 결합한 것이다. 고대에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많은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 갔었다. 이러한 세금은 매우 강제적이어서 부세를 거부하거나 내지 못할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그러니 賦자에 쓰인 武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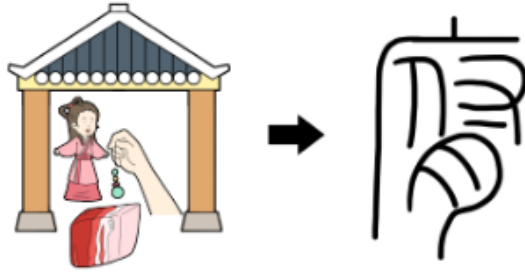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93

회의문자 ①



腐

썩을 부:

腐자는 '썩다'나 '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腐자는 府(관청 부)자와 肉(고기 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腐자는 고기가 썩거나 상한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肉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러나 腐자는 단순히 고기가 상한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정직해야 할 관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부패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腐자에 쓰인 府자는 '관청'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래서 府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랏일을 하는 관료들의 부정을 뜻하려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府자에는 '주다'라는 뜻의 付(줄 부)자까지 있으니 더욱 문자조합의 의도가 엿보인다.

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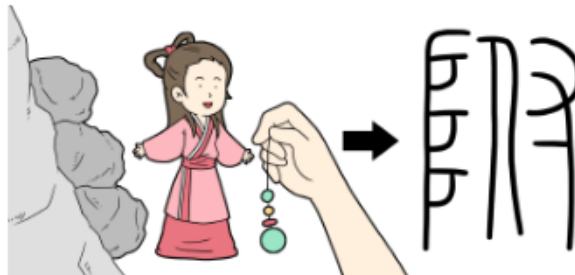
소전

腐

해서

3(2)
-
194

형성문자 ①



附

붙을 부(·)

附자는 '붙다'나 '붙이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附자는 阜(언덕 부)자와 付(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付자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다'나 '맡기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阜자가 결합한 附자는 본래 '작은 흙더미'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발음역할을 하던 付자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후에 '붙다'나 '의탁하다', '부합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을 갖게 되었다.

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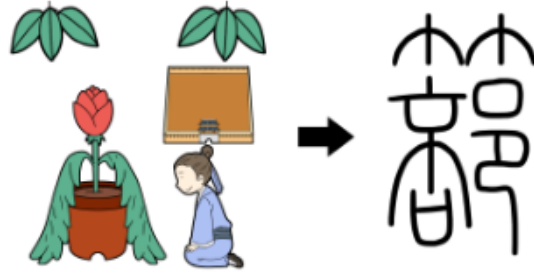
소전

附

해서

3(2)
-
195

회의문자 ①



簿

문서 부:

簿자는 '문서'나 '장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簿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溥(넓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溥자는 논밭에 모종을 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넓다'나 '광대하다'라는 뜻이 있다. 장부는 나라를 다스리거나 살림살이를 하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적어서 기록하던 것이다. 그래서 簿자에 쓰인 溥자는 '두루'나 '넓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溥자가 아닌 韻(떼 부)자가 쓰였었다. 韻자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뜻으로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의 '장부'라는 뜻을 가졌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簿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簿자에는 '얇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죽간의 두께가 얇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박'이라고 발음을 한다.

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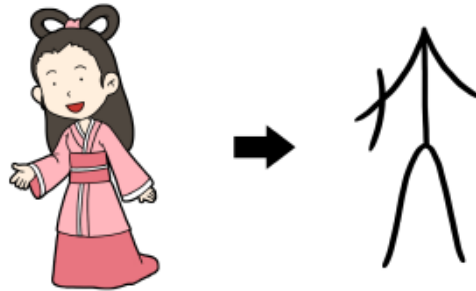
소전

簿

해서

3(2)
-
196

회의문자 ①



扶

도울 부

扶자는 '돕다'나 '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扶자는 手(손 수)자와 夫(지아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扶자를 보면 大(큰 대)자의 손 부분에 획이 하나 𠂇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부축한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夫자에 又(또 우)자를 𠂇 그려 넣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가 소전에서는 手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𠂇

갑골문

𠂇

금문

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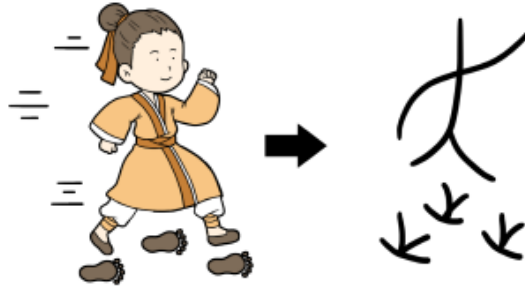
소전

扶

해서

3(2)
-
197

회의문자 ①



奔

달릴 분

奔자는 '달리다'나 '급히 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奔자는 大(클 대)자와 卉(풀 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奔자의 금문을 보면 팔을 좌우로 휘두르며 달리는 사람과 아래로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止자가 여러 개 그려진 것은 매우 바빠 달려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止자가 艸(풀 초)자로 바뀌었고 해서에서는 이것이 다시 卉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奔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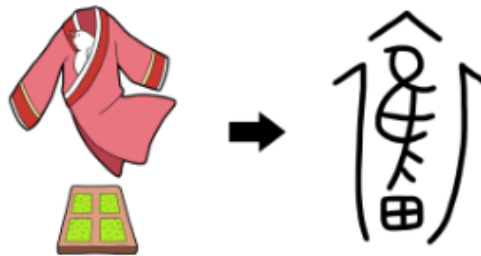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98

회의문자 ①



奮

떨칠 분:

奮자는 '떨치다'나 '명성을 드날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奮자는 大(큰 대)자와 隹(새 추)자,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奮자의 금문을 보면 大자가 아닌 衣(옷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 밭과 새가 함께 그려진 것은 품 안에 있는 새가 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뜻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奮자의 본래 의미는 '날갯짓을 하다'였다. 후에 새의 날갯짓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떨치다'나 '명성을 드날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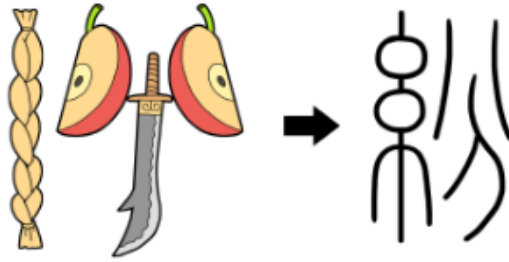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99

회의문자 ①



紛

어지러울
분

紛자는 '어지럽다'나 '번잡하다', '엉클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紛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分(나눌 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分자는 칼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分자에 糸자를 결합한紛자는 칼로 실타래를 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묶어 놓은 실타래를 칼로 자르면 이리저리 뒤엉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紛자는 실타래가 헝클어진 것과 같이 매우 어지러운 상황을 뜻하게 되었다.

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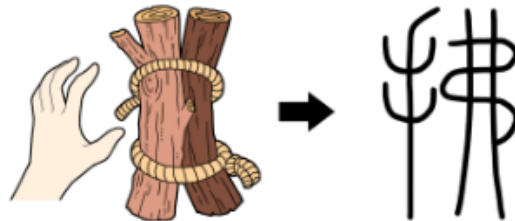
소전

紛

해서

3(2)
-
200

회의문자 ①



拂

떨칠 불

拂자는 '떨치다'나 '사악함을 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拂자는 手(손 수)자와 弗(아닐 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弗자는 통나무를 끈으로 묶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라는 뜻이 있다.拂자에서 말하는 '떨치다'라는 것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떨쳐낸다는 뜻이다. 그러니 통나무를 단단히 묶어놓은 모습의弗자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手자는 이것을 풀어서 떨쳐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拂

소전

拂

해서